

오 전 예 배	1부 오전 9:30, 2부 오전 11:00	임춘배 담임목사
	3부 오후 1:00 (청년예배)	김진만 목사

1, 2부		3부 (청년)
기 원	인도자	경배와 찬양
찬 양 과 경 배	20장 (통일찬송가 41장)	
교 독 문	교독문 105번 (감사절)	
찬 양 과 경 배	428장 (통일찬송가 488장)	
기 도	조 계 승 장로	편 성 재 청년
특 송	소프라노 파트	
말 씬 봉 독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18절	누가복음 16장 19-31절
설 교	범사에 감사하라 (임춘배 목사)	부자와 나사로 (김진만 목사)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정예영 회장
파 송 의 노 래	주의 나라 세우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축 도	임춘배 목사	주기도문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수 요 예 배	오후 7: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	---------	--------------

주와 함께 거하는 자의 자격 (시15:1-5)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1. 맥 추 감 사 주 일** 오늘은 맥추감사주일로 드립니다.
- 2. 제 직 회** 오늘 주일 11시 예배 후 제직회가 있습니다.
- 3. 예 배 안 내** 1.주일예배: 주일예배는 1,2부로 나누어 대면예배로 드리고 영상을 제공합니다.
2.주중예배: 수요일예배와 금요일기도회를 대면예배로 드립니다. 당분간 금요일기도회 영상 제공합니다.
3.각종행사: 각종 모임과 행사는 당분간 갖지 않음
4.헌금안내: 당분간 계속해서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 4. 개인경건훈련안내** 1. 가정예배드리기 2. 매일큐티하고 기도하기
3. 성경읽기(3차)
(범위 : 갈라디아서 1장 ~ 골로새서 4장)
4. 경건서적읽기
5. 부서별 비대면 성경공부
- 5. 코 로 나 1 9
기 도 제 목** 1. 열방이 우상숭배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2. 코로나 19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하루 속히 종식되어 일상의 삶이 회복되도록 기도합니다.
3.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야가 회복되고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되도록 기도 합니다.
4. 한국교회의 예배와 사역들이 위축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 도록 기도합니다.
5. 선한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들과 선교지, 그리고 작고 연약한 교회들을 지켜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6. 선한교회와 가정들이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기도합니다.
- 5. 떡 제 공** 구문서, 김은정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제공해주셨습니다.

한주간의 기도제목	우리의 삶이 예배임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한주가 되기를
----------------------	---

찬송 : '하나님의 나팔 소리' 180장(통168)

본문 : 요한계시록 8장 1~5절

말씀 :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선포하시는데 오늘 말씀에도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이때 좀 색다른 장면이 전개됩니다. 천사가 마지막 일곱 번째 봉인을 떼는 순간에 갑자기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해졌다고 합니다. 큰 소리든 작은 소리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갑자기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지금 일곱 봉인을 다 떼었습니다. 봉인을 뿔 때는 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팔을 불 때는 좀 다릅니다.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면 나팔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질 때는 다른 소리가 들리면 안 됩니다.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입을 다물고 조용히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모든 소리는 잠잠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소리,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의견, 사람들의 주장, 그것이 아무리 똑똑하고 그럴 듯해도 다 멈추어야 합니다. 반 시간 동안의 고요함은 우리에게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반 시간의 고요함이 있었던 이유가 또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천사가 향로를 제단에 바치는데 그 향로에 성도들의 기도가 들어 있다고 합니다. 기도가 향과 섞여져서 향로에 가득 담겼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가장 듣고 싶어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합니다. 유창하게 잘하는 기도만 기도가 아니에요. 더듬거리는 기도도 거기에 우리의 진심이 담겨 있다면 훌륭한 기도가 됩니다. 잘 다듬어진 기도만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주여' 이렇게만 외쳐도 훌륭한 기도예요. 그저 신음소리 탄식소리 한숨소리만 내어도 기도가 됩니다. 가느다란 소리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우리 하나님이 귀를 쫓긋하고 계신데 다른 잡다한 소리가 들리면 안 되겠지요. 엉뚱한 소리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면 기도 소리가 잘 안 들리겠지요. 그래서 반 시간의 고요함이 필요합니다. 반 시간의 고요함은 거룩한 고요함입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의 고요함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반 시간의 고요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고요함 속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팔 소리만 울려 퍼지고, 우리의 기도와 찬송만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제 목

범사에 감사하라 (살전5:16-18)

서 론

오늘은 맥추감사절입니다. 많은 것을 손에 쥐려고 하는 것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소유하려고 해야 합니다.

본 론

1. 감사하는 마음

- (1) 우리의 행복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감사하면서 사느냐에 달려 있다.
- (2) 하나님의 뜻 3가지: ①항상 기뻐하라(16절) ②쉬지 말고 기도하라(17절) ③범사에 감사하라(18절)
- (3) 범사에 감사하는 방법: ①매일 습관적으로 감사 ②모든 상황속에서 감사 ③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감사

2. 교훈

- (1) 항상 기뻐하고 있는가? 불평하고 있는가?
- (2)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가? 낙심하고 있는가?
- (3)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가? 원망하고 있는가?

결 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2부 예 배 기 도	조계승 장로	박영근 장로

매일 Q.T.		회개와 눈물의 저녁, 은총과 기쁨의 아침	날짜 : 7월 4일
찬양	찬송가 487장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본문	시편 30:1~12		
말씀요약	시편 기자는 주님을 높임은 그분이 자신을 건지셔서 원수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의 노염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을 도우셔서 슬픔이 춤이 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목상질문 1	노염은 잠깐, 은총은 평생 30:1~7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노염과 은총이 어떠하다고 말했나요? 은총의 기쁨으로 아침을 맞도록 내가 즉시 회개할 일은 무엇인가요?		
목상질문 2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30:8~12 시편 기자가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무엇이었나요? 죽음의 문턱에서 나는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한절묵상	시편 30편 3,5절 '노염'과 '울음'과 '스울'의 경험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노염'은 우리를 깨우는 잠깐의 징계이고, 우리의 '울음'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양분이며, '스울'은 우리를 겸손히 회개하게 하는 최적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 두려워하는 사람, 죄와 고통으로 슬퍼 마음이 무너져 본 사람, 스울의 공포와 비참함에 몸서리쳐 본 사람은 죄를 멀리합니다. 죄에서 떠나야 은총과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한시도 온전히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닫습니다. 형통한 중에 교만해지지 않고, 고단한 중에 낙심하지 않으며, 매 순간 믿음을 지키도록 붙들어 주소서. 넘치는 긍휼로 저를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전파하게 하소서.		

개인성경공부		“고난이 주는 유익, 위로”	
찬양과 기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새 337)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목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구나 고난을 피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난의 원인도 다양해서 세상의 변화, 즉 시대가 변화해 감에 따라 고난이 있기도 하고, 개인의 관계 속에서 괴로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고난으로 인한 상처를 위로하고 도움을 주려고 나오는 책들은 그 숫자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극심한 고통과 상처로부터 마음의 자유를 얻고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많은 사람에게 위로가 됩니다. 영국 격언에 '상처는 별이 되다'(Scar into Star)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건강하게 상처를 극복했다면 마음 한켠에 훈장과 같은 별로 남아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헨리 나우엔은 그의 저서 「상처입은 치유자」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상처는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처를 입은 자가 그 상처를 극복한 후에는 다른 사람들이 상처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상처가 별이 되지는 않으며, 상처를 회복한 사람이라고 해서 상처를 치유할 자격을 얻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처의 온전한 회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생의 아픔을 스스로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시고 치유할 수 있는 치료자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고난과 상처가 유익하게 쓰임 받을 수 있나요?		
말씀 나누기	고린도후서 1:1~11		
목상포인트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이 견딜 만한 고난이 아니었다고 진술하며, 그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위로를 주셨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인해 심한 고통과 두려운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권면합니다. 고난 앞에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고, 문제에 몰두해 어디론가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는 견고한 달이 되십니다. 극심한 고난 속에서 살 소망이 되시고, 견딜 힘도 주십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고난 속에서 참된 위로가 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또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목상	바울이 언급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고난당한 성도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시나요?(3~4절)		
적용하기	고난당할 때 나의 기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떠올리며 기도할 수 있나요?		
함께 기도하기	문제 앞에서 언제나 연약해지는 제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위로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소망의 복음을 붙잡게 하시고,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전하게 하소서.		
기도			

매일 Q.T.		선하신 하나님 뜻에 '예'로 응답하는 성도	날짜 : 7월 8일
찬양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본문	고린도후서 1:12~22		
말씀요약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습니다. 그들을 방문하는 계호기는 육체의 지혜가 아닌, 미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우리는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 치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목상질문 1	바울의 진솔한 변명 1:12~14 바울은 '주 예수의 날'(14절)에 고린도 성도들과 어떤 관계가 되길 소망했나요? 관계에서 오해가 생길 때, 나는 진실함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목상질문 2	하나님 약속에 '예'가 되신 그리스도 1:15~22 바울은 자신의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음을 어떻게 설명했나요? 내가 말씀을 신뢰하고 '예'로 응답해야 하는 하나님 뜻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차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류의 거시적인 구속 역사와 개인의 미시적인 구속 사역에서 언제나 '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약속을 굳건히 믿게 하시고자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시고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습니다.(22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매사에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때로는 오해가 쌓여 비난이 쏟아질 때에도 거룩함과 진실함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입고 말하는 대로 행함으로, 서로에게 자량이 되는 송도가 되게 하소서. 저희 마음에 부으신 성령을 좇아 하나님 뜻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매일 Q.T.		환난 때 주님께 피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	날짜 : 7월 5일
찬양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본문	시편 31:1~8		
말씀요약	시편 기자는 주님께 피하니 자신을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공의로 건져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 자신을 위해 자신을 인도해 주시길 바라며, 원수가 비밀히 친 그물에서 빼내시길 간구합니다. 속량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영을 부탁하며, 자신의 고난을 돌아보신 주님의 인자하심을 기뻐합니다.		
목상질문 1	공의의 주님께 간구함 31:1~5 시편 기자는 억울한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했나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목상질문 2	주님을 신뢰함 31:6~8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영광의 왕은 어떤 분이세요?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영광의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내 삶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한절묵상	시편 31편 1절 죄는 우리에게 수치를 안겨 주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영화롭게 합니다. 사탄의 계략은 우리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수치를 영광으로 역전시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참으심으로(히12:2), 우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었기에(벧전 2:6)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고난의 무게에 압도되어 하나님을 외면했음을 회개합니다. 누구보다 저를 잘 아시는, 완전한 피난처이신 하나님 품에 깊이 안기게 하소서. 설령 고난이 더디 지나가도 그 의와 이름에 합당하게 제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매일 Q.T.		앞날을 주님께 맡기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날짜 : 7월 6일
찬양	찬송가 406장 곤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본문	시편 31:9~24		
말씀요약	시편 기자는 고통 중에 있는 자신에게 은혜 베푸시길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근심과 죄악으로 영육이 쇠하고 대적들에게 욕을 당하며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또한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자신에게 놀라운 사랑을 보이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목상질문 1	멸시와 천대 31:9~13 시편 기자가 고통당할 때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대했나요? 내가 고통을 겪을 때 주위 사람들은 내게 어떻게 대했나요?		
목상질문 2	신뢰와 찬송 31:14~24 최악의 상황에서 시편 기자가 주님을 의지하며 했던 말은 무엇인가요?(14절) 내가 담대히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요인은 무엇인가요?		
한절목상	시편 31편 19절 ‘누구를 두려워하며 사느냐에 따라 영원히 거할 곳과 얻을 것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두려워해 생존과 성공을 추구하면 평생 만족 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형벌을 받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두려워해 세상에 맞서는 사람은 평생 은혜의 바다에 잠겨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품에서 안식합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공포와 염려’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경외와 신뢰’입니다. ‘경외와 신뢰’를 선택하면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세상이 끊임없이 저를 흔들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 답답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니 감사합니다. 깨진 그릇 같은 인생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해 새 힘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이 기필코 건지실 내일을 기대하며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매일 Q.T.		고난의 때에 의지할 모든 위로의 하나님	날짜 : 7월 7일
찬양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본문	시편 고린도후서 1:1~11		
말씀요약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며,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받는 위로로써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자신들이 심한 고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 함이라며, 기도로 돕기를 성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목상질문 1	위로하시는 하나님 1:1~7 바울은 자신이 환난당하는 것도, 위로받는 것도 결국 무엇 때문이라고 했나요?(6절) 내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로써 위로할 지체는 누구인가요?		
목상질문 2	전기시는 하나님 1:8~11 바울에게 사형 선고와 같은 환난을 겪게 하신 하나님 뜻은 무엇인가요? 과거에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이 현재도 나를 건지실 것을 확신하나요?		
한절목상	고린도후서 1장 5,7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참여’에 해당하는 헬리어 ‘코이노니아’로, 이는 수동적이거나 정적인 맛봄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나눔’과 ‘교제’를 의미합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 당한 고난을 성령의 교통 안에서 ‘적극적’으로 나누는 성도는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고 누립니다. ‘적극적’ 나눔과 교제는 피상적 관계에서 벗어나 생명력있는 관계, 깊은 위로를 경험하는 관계로 나아가게 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숨 쉬기조차 힘겨운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려는 훈련임을 깨닫습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 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넘치는 위로가 공동체 안에 가득하게 하소서.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함께하시며 저를 더욱 견고히 세우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